

백곡 김득신의 산문 문학에 대하여

- 가전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창 룡(한성대학교 교수)

1. 머리말

『백곡문집(栢谷文集)』에 들어있는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의 시와 문에 있어서의 양적인 비중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평한대도 그의 사장(詞章)을 대표하는 문학적 본령은 시에 둔다 함은 이제 평단의 정설처럼 되었다.

그리하여 김득신의 시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꾸준한 진척을 이루고 있는 반면, 문의 연구에 관한 거의 전무한 실정도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과연 그의 시능(詩能)만이 인정되고 문 방면에 있어서는 거부되고 사양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무릇 고전의 문학사를 돌아보건대, 시가 문보다 승(勝)한 이가 반드시 없지는 않았으니, 예컨대 정지상(鄭知常) 같은 이가 두드러질 것이다. 또, 반면에 문이 시보다 절등한 이가 반드시 없지는 않았으니 김부식(金富軾) 같은 이가 거기 해당할 것이다.

운문과 산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굳이 먼 시대에서 찾을 나위도 없이 현대의 안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날의 문학은 크게 시와 소설이라는 양대 장르로의 구분이 가능하고, 그리하여 각자의 영역에 능력을 지닌 시인이 따로 있고 소설가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시인이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이름을 얻은 이를 물색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니, 비록 고금 간에 시대가 다를망정 시문이란 필경 그 고유한 재능과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김득신의 경우도 시의 능(能)만 따져 평가할 뿐, 능문(能文)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평언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김득신의 문이 또한, 충분한 상시(嘗試)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칭예(稱譽)의 가치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시작된다.

2. 백곡의 산문 인식

김득신의 자는 자공(子公), 백곡(栢谷)은 아호이다. 안동이 본관으로,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치(緄)의 아들임과 동시에 진주목사(晉州牧使)를 역임한 시민(時敏)의 손자이다. 그의 호를 백곡이라 이름붙인 뜻은 그가 목천(木川)의 백전(栢田)에 거했던 일로 연유했다 한다.

그는 선조 37년 출생의 이래 광해, 인조, 효종, 현종을 거쳐 숙종 10년에 생을 마칠 때까지

지 여섯 왕에 걸쳐 재세한 81세의 생애를 통해서 다사다난의 시대를 살다간 인물이다.

그러나 김득신이라 하면 무엇보다 노둔(魯鈍)과 고음(苦吟)의 대표적인 인물처럼 알려져 있다.

노둔과 관련하여서는 그가 소시에 『사략(史略)』 26글자를 여러 날 배웠음에도 능히 구두를 달지 못하였다 함¹⁾과, “마상봉한식(馬上逢寒食)”이란 당인구(唐人句)를 자신의 창안으로만 오인하였다는 일화²⁾ 등이 전한다. 또한 그 자신이 <백이전(伯夷傳)>을 일억 차례나 독파하였다고 말한 것³⁾이 사대부 진신간(摺紳間)에 유명한 기화(畸話)로서 횡전(喧傳)되었을 만치 그는 문장 수련에 있어 우직스러움을 보여주었던 문인이기도 하였다. 이 모두를 유의해보면, 다름 아닌 그의 암송의 능력 내지는 기억력의 부진함과 관계됨을 알기 어렵지 않다.

고음에 관해서 역시, 백곡 자신이 『종남총지(終南叢志)』에 시에 대한 일생의 마음고생 [一生心苦] 을 자백하였고⁴⁾, 박세당(朴世堂)이나 임방(任墜)같은 이도 백곡이 시작(詩作)에 있어서 정신을 부리고 심비(心脾)를 괴롭히던 정상을 일자천련(一字千鍊)의 말로 비의한 적이 있다.⁵⁾ 그러나 시문 간에 분간해 보면 이는 김득신의 문이 아닌 시에 대한 평가임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고음’이란 시창작의 태도 및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노둔과는 별개의 개념인 것이다. 시작의 과정에 지나친 결벽증을 나타내는 고음의 태도는 당나라 두보에게서도 발견되었던 현상이기도 했다. 백곡의 창작적 결과는 역시 당시대의 이식이나 정두경 같은 이들의 추허를 입는 등, 17세기 시단의 중심에 섰던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더구나 백곡의 이같은 고음의 반면에는 시를 재빠르게 지어낸 산물인 <주음(走吟)>의 작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시에 있어서만큼 그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제 그의 시적 경계에 비해 백곡의 문은 어떠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제가(諸家)의 평을 들어보면 대략 이러하였다.

우선, 이서우(李瑞雨)의 <백곡집서(栢谷集序)>에 보면,

어떤 이는, “공의 문은 시의 공교함만 같지 못하니 공이 <백이전(伯夷傳)>에서 얻은 바는 없어.” 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응대하였다. “공이 얻은 게 없음이 아니라 다 얻지 못한 것일세. 그것 때문에 과거시험 공부를 못하게 된 것이지만, 늦게나마 과거에 된 것은 그 역시 <백이전>을 높였던 까닭이지 운운.”⁶⁾

라고 논급된 부분이 있거니와, 이 말에서 한 가지 시사되는 바가 있다. 곧, 백곡이 일억일만 삼천 독을 했다는 <백이전> 공부의 효과에 대해선 비록 위의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곡의 문장이 시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있어선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1) 이현석(李玄錫), <묘갈명(墓碣銘)>에, “幼而魯 十歲始就學十九史略 首章僅二十六字 而三日不能口讀…”

2) 이가원(李家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1986, p.291 참조.

3)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 『백곡문집』 권5 참조.

4) 李唐諸子作詩 用盡一生心力 故能名世傳後… 余亦有此癖 欲捨未能 戲吟一絕曰 爲人性癖最耽詩 詩到吟時下字疑 終至不疑方快意 一生心苦有誰知… (『종남총지(終南叢志)』)

5) …方其役精神苦心脾 一字千鍊 舉臂指疑 蹇驢款段 躑躅街途 雖騁導嘖喝 傍人辟易 而將亦不能自覺. (『서계선생집(西溪先生集)』 권7 <백곡집서>)
金栢谷得臣 平生工詩 謂琢肝腎 一字千鍊 必欲工絕 其賈島之流乎 … (『수촌만록(水村漫錄)』)

6) 或謂 公文不如詩之工 疑公無得於伯夷傳 余應之曰 公非無得者 得之不全 由學子之業之奪之也. 其晚 於科則亦伯夷傳之爲崇矣.

백곡의 <제문(祭文)>을 쓴 조현석(趙顯錫) 같은 이도 백곡시의 성화(盛譁)를 칭도한 반면, 문은 “여사(餘事)” 짬으로 간주하였다.⁷⁾ 이 밖에도 그의 <행장(行狀)> 가운데의 표현인 “尤工於詩”(시에서 더욱 공교하였다) 같은 것도 환연하면 산문 쪽의 상대적인 열세를 암시한 뜻으로 보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덕무는, 백곡이 그 엄청난 독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문 쪽에 족히 볼 만한 것이 없는 만큼 지독히 노둔한 이라고 폄평(貶評)한 바 있다.

平生讀書之多 定爲古今稀見 讀伯夷傳一億一萬三千番 它可類推也. 其集中文只數篇 而不足可觀 才之至鈍者也.

평생 책을 읽은 것이 많기로는 진실로 고급에 보기 드물어, <백이전> 읽기를 일억일만삼천 번이나 하였다 하니, 그 나머지는 짐작할 만한 것이다. 그 문집 가운데서 문은 고작 몇 편에 지나지 않는 데다, 족히 볼 만한 게 없으니 재주치곤 지독하니 둔한 사람이었다.⁸⁾

그러나, 문이 고작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백곡집』 권5~권7까지는 문을 수록한 것인데, 권5의 서(序), 기(記), 권6의 발(跋), 명(銘), 논(論), 책(策), 설(說), 서(書), 장(狀), 전(傳), 록(錄), 제(題), 해(解), 지(誌), 권7의 서(書), 답(答), 제문(祭文), 상량문(上梁文), 서(序), 계(啓), 표(表), 잡록(雜錄) 등 다양한 문체를 구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 대개 그의 문집을 전체로서 비준하여 보았을 때 문 부분만 43%를 상회하는 분량인 것이니, 결코 “고작 몇 편(只數篇)”이 아닌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서 이가원도 “백곡은 원래 시에 장(長)이 있다”⁹⁾고 평한 바 있어, 결국은 아무도 백곡의 문이 승(勝)함을 주장한 이가 없으므로 보아도, 그의 문이 상대적으로 열세라 함이 대체의 견해인 것으로 보아 무방하리라 사료된다.

사실은, 백곡 본인도 자신의 문의 취약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는 종래의 시론에서 말하는 바, 시란 학문적 노력과는 별개의 천품(天稟)이요 재주라고 하는 이른바 “시유별재(詩有別才)” 설을 깊이 신념했던 한 사람이었다.¹⁰⁾ 그렇기 때문에 “시인에게 그러한 재주가 없을 것 같으면 시를 쓸 수가 없다(詩人無其才 則弗能爲詩)”¹¹⁾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아울러, 자신은 시에 관한 어느 정도 이같은 천품을 타고났다고 믿은 것 같지만, 오히려 문에 관해서만큼은 그것의 부족됨을 절감한 듯 여겨진다.

전술한 것처럼, 그가 36년 동안 매두몰신(埋頭沒身)으로 열독하였다는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를 보아도 그 분발하였던 표적과 대상이 두시(杜詩) 등으로 대표되는 운문이 아닌, 전적으로 산문 일색이었다는 사실에 각별한 주목을 요하게 된다. 이렇듯 깊이 있고 비상한 독서 사승(讀書師承)이 시가 아닌 문 쪽에서 전적으로 일어났음은 필시 문 방면에 대한 소질 바탕을 끝내 자신할 수 없었던 데에서 연유된 듯하다. 그러기에 사마천·한유 등의 문장, 곧 고문을 귀감으로 한 이 같은 고신(苦辛)·분투(奮鬪)가 문의 취약을 극복할 수

7) 不特吾東 皆推宗匠 華人採詩 首加稱賞 文雖大鳴 乃公餘事.

8) 이덕무, 『영처잡고(嬰處雜稿)』,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5.

9) 이가원, <백곡문집영간서(栢谷文集景刊序)>, 『백곡문집』, 태학사, 1985, p.2.

10) 김창룡, '백곡 김득신의 인간과 문학(下)', 『충격과 조화』, 동방문화비교연구총서 2, 1992, pp.523~526.

11) <송김계진서(送金季珍序)>, 『백곡집』 권5.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간주된다.

백곡 스스로가 진·한·당·송에 걸친 독서 편력의 열정을 과시한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杜門端坐萬番讀 漢宋唐秦以上文

最嗜伯夷奇怪體 飄飄逸氣欲凌雲.¹²⁾

문 닫아 걸고 바로 앉아 일만 번을 읽나니

한, 송, 당, 진 시대 앞의 글들이다.

그 가운데도 백이의 기괴한 체를 가장 좋아하나니

표표히 이는 호일의 기상은 구름 너머로 넘나는 양.

이처럼 비상하고 각고에 찬 문장수업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침내 문장가로서의 명성은 얻지 못하였던 결과로 보아도 확실히 ‘시유별재(詩有別才)’나 마찬가지로 문 또한 별재가 요구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곡이 그렇듯 가혹한 독서훈련을 포기 아니한 채 지속하여 나갔던 사실로 미루어 생각할 때, 그는 시와는 달리 문만큼은 천부적 재질[別才] 이외의 노력으로 극복·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다.

백곡은 문장학습의 가장 큰 귀감을 한대의 것에서 찾았던 반면, 송대의 것을 낮게 쳤으니, 이같은 존한(尊漢)·비송(卑宋)의 취의(趣意)가 권6의 <죽창집발>에 소상하게 나타나 있음이다.

무릇, 문장하는 도에 있어 한을 본받기는 어렵고 송을 본받기는 쉬운 것이다. 어찌서 그런가 하면, 한의 문장은 고아(古雅)하여 그것을 본받기가 어렵고, 송의 문장은 이속(俚俗)하여 그것을 본받기가 쉬운 까닭이다. …(중략)…송의 문장을 보면 손으로 찢어버리고 타기(唾棄)해야 하는 대신, 반드시 한의 문장을 취해다가 오로지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저 여대 이후로 명경(名卿)이며 현철(賢哲)의 문장이 비록 웅혼하고 빛나기는 했어도 또한 하나같이 고아스럽지 못함은 왜일까? 대개 이는 한의 글을 버리고 송의 글을 취해서 높은 까닭이다. 그런 까닭에 한을 본받기는 어렵고 송을 본받기는 쉽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¹³⁾

그는 이 같은 존한·비송과 관련하여 문장에는 각 시대에 따른 기수(氣數)라는 것이 있음을 논급하였다.

대개 세대가 내려올수록 기수도 쇠해지는 것이니, 따라서 송의 문체가 이속함은 의당한 것이 아니겠는가?¹⁴⁾

12) <제고문초책(題古文抄冊)>, 『백곡집』 권2.

한편, 『중남총지(終南叢志)』에도 이 시가 소개되어 있는 바 제3·4구는 같은 반면, 기구와 송구 만은 “搜羅漢宋唐秦文 口沫讀過一萬番”으로 다르다.

13) 大凡爲文之道 有學漢學宋者 而學漢難 學宋易 何則 漢之文古而其學也難 宋之文俚而其學也易 …見宋之文 手搗之 啾唾之 必取漢之文 而專治者 …粵自麗代以還 名卿雋哲之文章 雖雄渾彬彬 亦皆不古 何 蓋捨漢文 取宋文而尚之 故學漢則難 學宋則易而然耶. (<죽창집발>, 『백곡문집』 권6)

14) 蓋世代殺而氣數衰 故宋之文體之俚 不亦宜乎. (위와 같음)

이같은 기수론(氣數論)에 덧붙여서, ‘기수가 많이 쇠퇴한 뒷시대에 난 사람이라도 고아한 문체에다 공력을 기울이면 고문체에 도달할 수 있다’하는 백곡의 사유를 마침내 확인할 수 있게 된다.¹⁵⁾

그러므로, 이제 그의 문관(文觀)을 시관(詩觀)과 대조하여 보았을 때, 첫째 시관이 존당비송이었음에 비하여, 그의 문관은 존한비송에 입각해 있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요, 둘째 그는 시에는 별종의 재주가 있음(詩有別才)을 믿었던 반면, 문에서의 별재를 생각지 않았던 듯싶다.

그리하여 문에 관한, 열혈의 노력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존한을 위주로 한 독서의 평생계획을 실천하였던 것 같으니, 전개한 바 <고문삼십육수독수기>는 그같은 심중의 여실한 반영으로 보인다.

백곡은 또 문에 있어서의 의(意)와 법(法)을 주장하였던 바, 권5의 <독남당서(讀南堂序)>에 그 뜻이 비친다.

다름 아니라, 의란 문장의 내용적 의미이고, 법이란 문장의 기법을 지칭하는 뜻이다.

백곡은 여기서 문장의 주된 것은 마땅히 의가 되며 법은 그 다음 가는 것이긴 하지만, 의와 법 어느 한 쪽에 편중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다.¹⁶⁾ 그리하여 문장이 올바른 의미(意正)를 얻기 위해서는 장자의 『남화경(南華經)』이 빠뜨려질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다.¹⁷⁾

그는 『남화경』이 유가 입장에서의 이단외도(異端外道)인지라 의의 차원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고 다만 법을 위해서 절실한 것인데, 만일 문장에 뜻을 두고도 이것을 읽지 않으면 문의 참다운 기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¹⁸⁾

문에 있어 『장자』 서를 높이 여겼던 발상은 하필 백곡 뿐 아니라, 지봉 이수광도 “문은 오경 외에는 『장자』와 사마천의 『사기』가 좋다”¹⁹⁾는 등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었다.

백곡의 문장론의 하나로서의 이같은 의법론은 흡사 시에 있어서의 전술한 이향론과 대칭 및 조화를 이루고 있어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는 이밖에, 문에 관련하여도 일찍 현달하면 문장에 취약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문장과 현·불현의 관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다시 한 번 늦게까지 현달치 못한 그의 신세적 불우에 자기합리적인 사고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다.

『백곡문집』 전체 7권 가운데 문은 5권에서 7권까지 걸쳐 있거니와, 그 가운데 권5의 <관동별곡서(關東別曲序)>, <순오지서(旬五志序)>,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 <평호소지석시설(評湖蘇芝石詩說)>, <소화시평서(小華詩評序)>, <취묵당기(醉默堂記)>와, 권6의 <죽창집발(竹窓集跋)>, <병가절요서(兵家節要序)>, <환백장군전(歡伯將軍傳)>, <청풍선생전(淸風先生傳)>, <백이전해(伯夷傳解)> 등이 나름대로 객관적 의의를 지닐 만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환백장군전>과 <청풍선생전>의 두 편은 각기 술과 부채를 모처럼의

15) …由是觀之 世代雖降 極博古文 盡其用功 則不患體古文之難 何論學宋之文哉 然則氣數雖衰 文體之古 在人之用功之如何爾. (위와 같음)

16) 蘇長公曰 吾讀南華然後 知文之法也 爲文而不知法可乎 吾友張遇季 嘗有言曰 爲文之道 意爲主 法爲次也 至哉 知文者之言也 爲文而只以意不以法 則其文徒意而已 只以法不以意 則其文徒法而已 此乃操觚者之所共知也. (<독남당서>, 권5)

17) 是以 季全讀聖經 而以意之正 知爲主於文 讀南華經 而以法之奇 知爲次於文. (위와 같음)

18) 南華經於儒道外道也 …夫豈以嗜南華 易其崇儒道之心 而惑於虛誕之外道哉 意者雖至於儒道 其素所業則 大肆力於文章也 不業文則已 如業之則 不讀南華經 而知文之法乎. (위와 같음)

19) 余於五經外 好莊子司馬子長 (『지봉유설』 문장부 2)

허구적 수법으로서 의인화한 가전 형식의 휘품들이다. 앞서 밝혔듯 이가원이 『백곡집』의 간행과 동시에 처음으로 착안하여 공식적으로 소개한 셈 되었다.

3. 백곡의 가전 작품

이처럼, 과거부터 그의 문학에 대해 언급하던 논자들마다 그가 문보다는 시의 편에서 훨씬 능장(能長)이 있다 함이 압도적인 정평이기는 하나, 기실은 산문 쪽의 각 분야에서도 두루 다양한 체(體)를 구사한 것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허구적 전의 한 양식으로서의 <환백장군전> 및 <청풍선생전>도 그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다.

이 두 편은 그간 미발굴인 채로 아직 이 방면에 알려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5년, 이가원이 백곡의 9세손인 김상형(金相馨) 옹과의 인연으로 『백곡집(栢谷集)』을 편술하는 과정에서 마저 소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²⁰⁾

<환백장군전>은 종래 한국의 술 가전이 <국순전(麴醇傳)> · <국선생전(麴先生傳)> 등 고려의 한 시대에만 한정된 줄로 알았던 종래의 인식을 완전히 불식하고, 16세기 간재(良齋) 최연(崔演, 1503~1549) 지은 <국수재전(麴秀才傳)> 및 18세기 인물이었던 존재(存齋) 박윤묵(朴允默, 1771~1849)의 <국청전(麴淸傳)> 등과 함께 이 계통의 가전이 조선조에도 그 면모를 연면히 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입증하였다는 데서 우선적인 의의를 부여할 만한 작품이었다.

또한 이것이 주인공 본전부에 이르러 전체가 영웅 · 군담적인 내용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전문학사상 전무후무한 특징이라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의 <수성지(愁城誌)> 가운데 국양장군(國襄將軍)이 출현 활약하는 부분을 연상케 하는 바 크거니와, 아니게 아니라 55년 전 백곡의 이 작품에서도 문제의 수성(愁城)을 격파함에 있어 결정적인 공훈을 세우는 주체가 바로 이 술의 인격화인 국양(國襄)이었다. 살펴보면, 이 한 편에서는 천군(天君) · 모영(毛穎) · 관성자(管城子) · 공방(孔方) 등, 가전사 흐름에서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였던 여러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수성지>의 실제적인 주인공 구실을 톡톡히 했던 당사자로 이 국양을 못 본 척 외면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과연 국양이란 인물은 <수성지>의 가장 중대한 계기이자, 동시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수성 사건의 문제를 가장 명쾌히 해결한 수성 사건의 최고 영웅, 곧 <수성지>의 주인공으로 아무런 손색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을 희극적 종결로 유도하면서 화려한 대단원을 장식하는 그 당당한 주체 또한 국양이 되는 바, 여기서 그는 천군으로부터 온갖 포상을 받는 과정에서 ‘환백(權伯)’의 작위도 마저 하사받게 되니, 다름 아닌 환백장군인 것이다.

그 밖에 천군과 조정 신하들 사이의 정론(廷論), 군담부 서술 등 전반적인 분위기 면에서 아무래도 김득신의 술 가전이 약 반세기 앞인 임제의 그것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유되어진다. 사실, 허구적 산문 안에서는 임제가 처음 구사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환백장군의 등장이 하필 <환백장군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김득신과 동시대 인물인 정태제(鄭泰齊, 1612~1669)의 작으로 추정된다 하는 <천군연의(天君演義)> 가운데도 부각되어 나타났다는지, 다시 또 한 세기 뒤 인물인 지광한(池光翰, 1695~1756)의 <취향지(醉鄉志)> 같은 곳

20) 이가원 편, 『백곡문집(栢谷文集)』, 태학사, 1985.9, p.2.

에 재현되었던 사실 등이 따른다. 그리하여 <수성지>의 영향력에 대한 새삼스런 인식과 함께, <환백장군전>과의 관련성 또한 긍정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

김득신은 본시 기주와 호음의 시인이었던 만큼 『백곡집』 가운데도 음주에 관련된 시구가 특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두가 자신이 공명(功名)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울민(鬱悶)-백곡은 59세에 비로소 문과에 합격하였다-을 달래기 위한 방편 속에서 다루어진 것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 그 음주의 이유가 거의 모두가 근심을 씻고[滌愁], 울민함을 잊어버리는[排悶] 데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²¹⁾ 김득신의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이 다만 시에서 뿐 아니라 술의 의인적 구상을 허구적 산문 위에 구현시켜 보려던 욕구마저 준동했을 터이고, 이것이 본편의 창작적 동인이 되리라 함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아예 권3의 <기중구(寄仲久)> 시 같은 곳에서는 ‘수성(愁城)’의 표현조차 그대로 나타나는 바,

愁城未易降 安得酒盈缸 (머릿집 필자)

역시 난공불락(難攻不落)한 수성 타과의 방도는 오직 그득한 술향아리에 달렸음을 애써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가 평소에 술을 우수 척결(憂愁滌挾)의 방편으로 여겼으되, “취한 때 잠간이야 기분이 난다지만, 세상살이 근심 저버릴 날 있을까(醉醒暫時雖有興 世間何日可無愁)”²²⁾ “술의 위력도 쏟아지는 근심을 막기는 어려워(酒力難排阻雨愁)”²³⁾와 같이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신뢰조차 잠시 사라지는 때도 없지 않았다. 또한 그는 늘 취향(醉鄉)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²⁴⁾으로 자처하였으나, 아마도 만년에는 방음(放飲)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鏡中衰鬢已垂絲 豪氣殊非盛壯時
詩恐瑕疵停筆數 酒嫌醞酒引盃遲。(偶吟, 권4)
거울에 비는 쇠 수염은 늘어진 실밥만 같아
호기도 암만해야 한창 때의 그것과는 다르지.
흠 잡힐 시일세라 붓 멈추는 일 잦아지고
만취해 버릴세라 술잔 붙들기도 머뭇머뭇.

그리하여 대개 <환백장군전>도 그의 노년기보다는 기운 성한 장년기의 소산으로 봄이 보다 사리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청풍선생전> 역시 앞의 가전이 그가 애호하고 탐닉했던 사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물

21) 그 중에 몇 가지만 인용하면 이러하다.
“舉酒愁仍破 耽詩病已痊”(〈示張季遇〉, 권3)
“排悶惟除酒 消愁強索詩”(〈次韻〉, 권3)
“中酒窮愁破 吟詩逸興豪”(〈清風道中〉, 권3)
“消遣深愁惟有酒 共傾杯杓醉樽前”(〈次韻〉, 권4)
22) <차운기우인(次韻寄友人)>(『백곡집』 권4).
23) <주필(走筆)>(『백곡집』 권4).
24) “吾身何許者 恒在醉鄉中”(〈次韻〉, 『백곡집』 권3)

이었던 것처럼, 그의 부채에 대한 비상한 취향이 낳은 또 하나의 산물이었다.

사실 김득신의 문집에는 사물에 대한 관심을 시로써 읊은 영물류(詠物類)가 적은 편은 아니었다. 예컨대 1권 가운데의 <영괴송(詠怪松)> · <영화(詠畫)> · <영백로(詠白鷺)> · <영화안(詠畫鴈)> · <영서여(詠薯蕷)>, 2권 가운데의 <영송(詠松)> · <영폭포(詠瀑布)> · <영앵도(詠櫻桃)>, 3권 가운데의 <영송(詠松)> · <영폭포(詠瀑布)> · <영다산기필(詠茶山奇筆)> · <영설(詠雪)> · <영응(詠鷹)> · <영국(詠菊)>, 4권 가운데의 <영송(詠松)> · <영화(詠花)> 등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채를 두고 읊은 시는 그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권1 가운데 <사증선(謝贈扇)>의 한 작품이 있어 거의 부채 영물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한몫을 차지하였다.

誰斫江南竹 裁成寶篋輕
清風生習習 知是故人情。
누가 강남 산(産)의 대나무 깎아서
마르고 재어 보배로운 부채 만들었나.
맑은 바람 술술 부쳐질 때
이건 바로 옛 친구의 마음.

공교롭게 여기서도 “청풍(淸風)”이란 표현이 나타나 <청풍선생전>과의 연계를 기약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렇듯 부채를 두고 읊은, 이를테면 영선(詠扇)의 시는 희한하였으되, 부채에다 읊어 쓴 이른바 제선(題扇)의 시는 만만치 않은 분량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이 각별한 주목을 끈다.

이제 그것들을 추려보면 <제화매선(題畫梅扇)>(권1), <제재중선(題載仲扇)>(권1), <제선(題扇)>(권1), <제최진사경헌선(題崔晉士景獻扇)>(권1), <제선(題扇)>(권2), <제화선(題畫扇)>(권2), <제선(題扇)>(권2) 등이다. 이 가운데 <제재중선>을 소개하면 이러하다.

與子曾分手 形容隔一年
今朝逢着處 把酒菊花前。
그대와 이별 나누었던 이래
일 년이나 서로 떨어져 있었네.
오늘 아침 서로 만난 이 곳
국화 꽃 마주하며 술잔 잡았네.

이것을 <증이생민채(贈李生敏采)>라 제목 한 본도 있다 하거니와, 이는 흡사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추강냉화(秋江冷話)』 내용 중에 백원(百源) 이총(李摠)이 남효온과 작별할 무렵 부채에 제(題)하여 준 시로,

相知八年內 會少別離多
臨分千里手 掩泣聞清歌。
서로 안 지 여덟 해에

만남은 적고 이별은 많았지.
또다시 천 리에 헤어지는 마당
맑은 노래 들으며 눈물 감춘다.

를 연상케 하는 바가 있다.

『백곡문집』 첨부의 <기문록(記聞錄)>에 소개된 김득신의 부채[扇子] 일화는 가히 진기한 이야기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判事) 정선홍은 다름아닌 현곡(玄谷)의 아들이다. 일찍이 조정의 반열에 입시(入侍)하였는데, 자주 소매 안쪽을 향해 지니고 있는 것을 말았다 폼다 하며 슬쩍 대해보곤 했다. 그러자 임금께서 “소매 속에 든 게 무엇이었오?” 물으셨더니 대답을 올리되, “소신이 부채 하나를 얻었는데, 다름 아닌 김득신이 자신의 ‘고목한연(古木寒烟)’ 시를 가지고 손수 쓴 것이옵니다. 신이 실로 아끼고 좋아하는 까닭에 자주 들여다봅니다.” 이에 임금께서 올리라고 명하사, 보시고 나서는 서안(書案) 위에다 놓으시고 판사에게는 다른 부채를 내리셨다.²⁵⁾

여기서, ‘고목한연(古木寒烟)’ 시 운운은 김득신의 시 가운데도 가장 중구에 회자되었던 5언시 <용호(龍湖)> 그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어니와, 과연 위의 이야기가 실화라고 하는 전체에서는 김득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광영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의 이 같은 영광적인 사실이 오직 부채의 인연으로 된 것이라고 할 때, 이 사물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양되고 집중되었으리라 함은 어찌먼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러면 시인 김득신이 바라본 부채의 심상(心像)은 어떠했을까? 부채 역시 여름의 죽부인, 겨울의 탕과자(湯婆子)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일정한 절기 동안 관심받고 애호되다가 계절이 지나면 잊혀지고 버려지는 사물인지라 득실이 뚜렷한 운명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은 작품의 전개 또한 상통되기 어렵지 아닐 것인즉, 특히 <청풍선생전>의 경우는 송나라 때 장퇴(張耒)가 지은 <죽부인전>, 고려조에 이곡(李穀)이 지은 <죽부인전>, 그리고 조선조의 조찬한(趙縝韓)이 지은 <탕과전(湯婆傳)>의 비극적 결말의 구성과 동태임을 쉽게 간과할 수 있다. 일찍이 유자운(劉子暈)이 지은 <기죽부인(棄竹夫人)>, 즉 ‘버려진 죽부인’이란 시 또한 문학의 형태는 비록 운문과 산문 사이에 달랐어도 그 의취에서는 한가지였다. 그 마지막 소절은 이러하였다.

豈不懷舊恩 君心已非初
當年紈扇謠 抱恨同區區
어찌타 지난 은정 모르랴만
군자의 마음도 처음과 같지는 않아.
그 당시 비단갑 부채의 노래가
구구절절 머금은 한 나와 다름 아니로세.

끝으로, 김득신의 가전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 있

25) 鄭判事善興卽玄谷之子也 嘗入侍朝班 頻向袖中卷舒所持便面 上問曰 袖中有何物 對曰 臣得一扇子 卽金得臣以其古木寒烟詩 自書者也 臣實愛好故 常常目之 命上之 覽畢 仍置案上 賜以他扇.

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평결부의 생략이었다.

평결부의 생략 같은 형식의 일대 파괴는 한국가전문학사 전반에 걸쳐 그 유례가 없는 대서특필할 만한 사건으로 볼 만한 것이다.

가전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고유한 ‘선계→본전→후계→평결’, 혹은 ‘서두→선계→사적→종말→후계→평결’의 기본적 형식의 틀을 본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일찍이 바로 그 형식적 원형인 『사기』 열전에서 평결부 이외의 다른 부분이 가다급 생략되는 일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작 평결부 만큼은 철칙으로 고수해오던 부분이었다. 한유로 시작되는 중국가전사 흐름의 시작 단계에서도 평결부 수호는 거의 금과옥조처럼 지켜져왔던 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한국가전문학사 전체 안에서 역시 다른 부분의 생략이 보이는 수는 간혹 있었어도 평결부 생략의 파격이 나타난 예는 찾을 길 없던 것이다. 이를 ‘파격가전’으로 명명해도 무방하겠거니와,²⁶⁾ 평결부의 생략은 확실히 한국가전사 안에서는 특별하고도 희한한 사항에 들었다.

동시에, 그것은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흥미 있는 사항이기도 했다. 일찍이 당나라의 7세기 경부터 왕성한 소설 창작의 기반을 이루었던 중국의 경우, 평결부 생략의 양상이 조만간 송나라 때 소식의 <온도군전(溫陶君傳)> 이래 별 부담 없이 이루어져왔던 사실²⁷⁾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한 양대를 통해 지극히 찾기 어려운 희한한 현상일 따름이었다.²⁸⁾ <환백장군전>·<청풍선생전> 등이 임병양란 이후 군담소설의 성행과 함께 허구적 한문체 소설이며 패담류가 안정 기반을 확보해 있던 17세기의 산물이라는 연상과 함께 시대가 한 작가에게 끼치는 영향의 면에서 시사되는 바가 있을 법도 하였다.

또는, 그의 개인적인 문장 체험이나 산문인식과의 관련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백이전>의 기괴체와 『장자』의 문장기법을 그가 높이 여겼던 사실, 또 그의 산문관이 “존한비송(尊漢卑宋)”이라 했던 이면에, 한(漢)·송(宋)·당(唐) 이상의 글을 읽었다는 그의 독서 체험이 이에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백곡의 송대 문학 이력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이에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栢谷嘗以己作示東溟 東溟曰 君尙謂學唐 何作宋語也 栢谷曰 何謂我宋語爲耶 東溟曰 余平生所讀誦 唐以上詩也 唐詩中文字 有曾所未見者 必是宋也 栢谷笑而服之.²⁹⁾

백곡이 일찍이 자신이 지은 시를 동명에게 보인 일이 있다. 그러자 동명이 말하기를 “그대는 항시 당을 배운다고 했는데 어이하여 송어(宋語)로 지었는가?” 하자 백곡이 이에 “무슨 뜻으로 내 시를 송어라 말하는가?” 하였다. 동명이, “내 평생에 읽은 것은 당 이상의 시이거든. 그런데 자네 시 가운데 문자에는 일찍이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 필경은 송의 문자가 아니겠는가.” 하자, 백곡이 웃으면서 승복하였다.

이에 대해 이가원은,

26) 김창룡,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p.109.

27) 이는 사마천의 『사기』 대신, 후한시대 반고의 『한서』와 범엽의 『후한서』 말미에 간혹 볼 수 있는 논찬부(論贊部) 생략과도 맥락이 닿는다고 보여진다.

28) 김창룡의 『한국의 가전문학 上·下』(태학사, 1997·1999)에서 다룬 총 50편의 한국가전 가운데 평결부 생략이 발생한 작품은 김득신의 이 두편과 조규철(曹圭喆)의 <공방전>뿐이라는 사실로도 한국가전문학사상 평결부 생략의 희소성을 실감해볼 길 있다.

29) 임경, 『현호쇄담(玄湖瑣談)』 소개.

학당을 표방했다 해서 전연 송(宋)에 흐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막역한 두 시가(詩家) 사 이 해당(諧談)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임경(任璟)이 이것으로서 양가의 우열을 판정하려 함은 그릇된 일인 듯싶다.³⁰⁾

고 평하였던 것처럼 학당이 곧 송을 도외시한다는 뜻은 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은 앞의 인용시에서도 나왔듯이 백곡 자신이 스스로 일만 독을 목표로 읽었다는 글들이 한, 송, 당, 진이라 하였던 데에 자연스럽게 그 답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에 김득신 산문의 겸송(兼宋) 경향을 함께 수용하는 가운데에 소동파와 같은 평결부 생략에 대한 이해의 터전도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맺 음 말

이제, 17세기 소단(騷壇)의 큰 위상을 차지하는 문인인 김득신에게 따라붙은 노둔과 고음의 개념은 필경 구분해서 이해해야할 듯싶다. 곧, 노둔은 시가 아닌 문에 해당되는 말로써 타당하고, 고음은 그의 시에 해당하는 말로써 타당할 듯싶다. 고음은 노둔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는 많은 수의 주필(走筆)과 함께 고음을 통한 명시를 산출해낸 작가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수만·억독으로 분발하였던 표적과 대상이 두시(杜詩) 등으로 대표되는 운문이 아닌, 전적으로 산문 일색이었다는 사실에 각별한 주목을 요하게 된다. 이렇듯 깊이 있고 비상한 독서사승(讀書師承)이시가 아닌 문 쪽에서 전적으로 일어났음은 필시 문 방면에 대한 소질 바탕을 끝내 자신할 수 없었던 데에서 연유된 듯하다. 그러기에 사마천, 한유 등의 문장을 귀감으로 이 같은 고신(苦辛)과 분투가 그 취약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간주된다.

백곡이 “시유별재(詩有別才)”를 애써 강조했던 반면에, ‘문유별재(文有別才)’에 관한 논지는 일찍이 나타낸 바 없었으니, 이는 아무래도 시와 달리 문만큼은 후천적 노력에 의한 성취 가능성을 믿었던 것이라 파악된다.

그런데, <고문삼십육수독수기>가 입증해주듯 그가 36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에 대한 호평만은 얻지 못하였던 것이지만, 아무래도 그의 시능의 우위에 따른 평가 절하일는지도 알 수 없다.

한편 그는 시대론을 통해서 한대의 문장을 가장 수범으로 생각했음과 동시에, 의법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이전>의 기괴체 및 장자 『남화경』의 문장 기법을 높이는 등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물론 이상과 같은 문학론은 일찍이 엄우(嚴羽)라든가 이수광(李睟光) 등의 시·문론 가운데서 한번 짚 언급된 부분이요, 백곡의 첫 발성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글 가운데 다소 막연하고 암시적인 부분에 특히 관심을 경주(傾注)하여 나름의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곧, ‘문학의 이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그나마 시화를 다루면서 문학적 본질에 접근하려던 몇몇 시인들에 의해 겨우 영위되어 가던 당시의 시단에서, 그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체계에 접근해 보려던 백곡의 평론가적 시도는 16세기, 허균·이수광의 뒤를 이어 17세기, 한국 평론사에 의미 있는 자취를 남겼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운문 뿐 아니라 산문창작도 위와 같은 그의 사유 깊은 문론과 관계하여 평

30) 이가원, 『조선문학사』 중책, p.837

가해야 온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에는 서(序), 발(跋), 기(記), 해(解) 전(傳) 등에 다양한 산문 장르에 걸친 소양과 능력을 나타내는 바 있었고, 대체로는 그 평가가 특별히 탁월했던 시 분야와 견주어서 승(勝)과 불승(不勝)을 평가 받았던 사실, 나아가 그의 수만·억독에 대한 노둔의 선입견 등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의 문에 대한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그의 두 가전 작품 또한 한국 가전사에 영롱한 색채를 더하면서 평결부의 생략 등 독특한 위상을 마련하였다는 점 등으로, 산문문학에서조차 마침내 성공적인 일좌(一座)를 점유하여 일가(一家)를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